



경제 및 금융시장 관련 주요 쟁점사항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침체 우려와 그리스 디폴트 가능성 제기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불안감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및 금융시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함.

- 시장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의문에 대하여 정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 및 자본시장 개방도가 높아 대외 불안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 사실이나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명함.
- 유럽계 차입비중이 높다는 지적에는 유럽계 차입비중이 32%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며, 유럽계 은행의 만기차환 거부 주장에는 일부 유럽계 은행의 만기상환 요구를 제외하고 차환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함.
- 외화채권 발행의 길이 막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국내 은행의 외화채권 발행이 다소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금융기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라고 반박함.
- 국가부도 위험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CDS 프리미엄 상승에 대한 의미를 과대 해석한 지적이며, 엄격한 의미에서의 CDS 프리미엄 상승은 직접적인 국가부도 위험 상승이 아닌 국가신용보험료 상승을 의미한다고 말함.
 - 특히,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 역전현상과 관련해서는 2010년 말부터 프랑스 CDS 프리미엄이 그리스 등 남유럽국가에 대한 익스포저(exposure)의 증가로 다소 높게 형성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.
- 외환보유액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절대적인 규모 뿐 아니라 단기외채 대비 외환 보유액 비중 등 질적 지표도 상당히 개선됨에 따라 위기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함.

(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'주요 쟁점사항' 해명, 기재부, 9/26)